

##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명칭의 중국어 번역 방안 연구

금지아  
(북경대)

### 1. 서론

무형문화재란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 및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정부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지역적,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964년 제1호로 지정된 종묘제례악 이후 2016년 현재 제130호까지 총 123종<sup>1)</sup>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보면, 음악, 무용, 연극, 음식과 무예,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1) 130종 가운데 7종은 각각 통합되거나 보유자 부재로 인하여 지정이 해제되었다. 제36호(판소리 沈淸歌: 제5호 판소리에 통합), 제37호(靛匠: 보유자 부재), 제52호(시나위: 보유자 부재), 제54호(꿇음질: 제10호 螺鈿匠에 통합), 제59호(판소리 鼓法: 제5호 판소리에 통합), 제63호(북메우기: 제42호 樂器匠에 통합), 제94호(벼루匠: 보유자 부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포함하고 있다. 특히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 짜기, 농악, 줄다리기 등의 한국 중요무형문화재는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인류 무형문화유산<sup>2)</sup>에 등록된 만큼 그 뛰어난 예술성과 기술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각종 서적과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어로 소개된 문화재의 명칭과 내용은 통일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제3호 ‘남사당놀이’는 ‘男寺党表演’, ‘男寺党游戏’으로, 제73호 ‘가산오광대’는 ‘驾山五广大’, ‘驾山五艺人’, ‘驾山假面戏’ 등으로, 제97호 ‘살풀이춤’은 ‘祛煞舞’, ‘驱邪舞’, ‘解恨舞’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심지어는 탈놀이(假面具), 영산재(灵山祭), 택견(跆拳道) 등과 같이 의도하지 않게 번역 과정에서 출발어에 내포된 정보를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국인들은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명칭에 대한 일률적인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인들에게 이해상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123종의 명칭에 대한 번역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유형문화재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고 또한 용어도 대부분이 한자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구체적인 형태가 없고 용어가 한자가 아닌 한국의 순수 고유어로 되어있는 일부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실제 문화재를 접하지 않고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중국어로의 번역이 없을 경우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문화소(Cultural Elements) 관련 어휘 번역의 이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문화재 명칭의 중국어 번역에는 출발어의 음을 차용할 것인지, 뜻을 풀어쓸 것인지, 출발어 문화권의 정서가 반영된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등의 문화소 번역과 관련된 고민이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명칭의 중국어 번역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명칭의 유형을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양상으로 각각 나누고, 2장에서 소개한 관련 이론을 적용한 번역 방안과 이를 적용한 예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국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2016.9.5).

## 2. 문화소 관련 어휘 번역의 이론

‘문화소’에 대해 페르메어(Vermeer)는 “담화망에서 개념화되지는 않았지만 목적어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문화적 산물”(권인경, 2013: 39 재인용)로 정의하고 있다. 김효중은 “어느 특정의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모든 사회 문화적 요소”(2004: 72)로 정의하고,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발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도착어 문화권에는 알려지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남원준(Nam, Won Jun)은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문화적 특정 항목’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세분하여 사람, 건물, 조직체 등의 이름인 고유명사, 특정한 문화와 관련된 항목,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과 관련된 항목, 관용어구, 무계와 척도 등으로 구분하고, 이 어휘들이 도착어 문화권에 동등하거나 유사한 어휘가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문화 중개자 역할을 하여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 사이의 문화적 틈새를 메워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 152-154) 이들 학자들 사이에서 용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리키는 대상이나 개념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소가 출발어와 도착어 문화에서 공유되지 않는다면 번역에서의 등가 구현이 힘들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출발어 문화권에서 생성된 문화적 요소의 축적물이 도착어 문화권에도 공통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화소는 서로 같지 않은 부등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톨제(R. Stolze)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화소의 부등성에 대해 언급하고, 출발어 문화권의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실제적 부등성’으로, 출발어 문화권의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 존재하지만 다른 언어적 형태를 지닌 경우를 ‘형식적 부등성’으로, 그리고 출발어 문화권의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 존재하지만 출발어 문화소의 뜻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원치 않는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적 부등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김효중, 2004: 38 재인용)

기존의 연구 중 문화소의 부등성을 해결하기 위한 번역 방안이 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이커(Baker, 1992)의 방안이 비교적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본

고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그는 출발어에서 사용된 어떤 단어가 도착어에는 직접적인 등가어가 없는 경우를 ‘단어 차원의 비등가(Nonequivalence at word level)’라 하고, 단어 차원에서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어 차원에서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근희, 2005: 77-78)

- 1) 출발어의 특정 어휘가 출발어와 관련된 고유 개념인 경우
- 2) 출발어의 특정 어휘의 개념이 도착어에 어휘화되지 않은 경우
- 3) 출발어의 어휘가 의미적으로 복잡한 경우
- 4) 출발어의 특정 어휘와 대응하는 도착어의 어휘가 의미상으로 상이하  
게 구분될 경우
- 5) 도착어에 상위어가 없는 경우
- 6) 도착어에 특정의 하위어가 없는 경우
- 7) 출발어와 도착어 간에 물리적인 관점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관점이  
상이한 경우
- 8) 출발어와 도착어 간에 표현적 의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9) 출발어와 도착어 간에 형태가 다른 경우
- 10) 출발어와 목적어 간에 특정 형태를 사용하는 빈도나 목적이 상이할  
경우
- 11) 출발어에 차용 어휘를 사용한 경우

베이커(1992)는 어떤 유형의 비등가어를 접하더라도 맥락 속에 내포된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어휘의 의미적 측면을 재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단어 차원에서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번역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이근희, 2005: 78-79)

- 1) 더 상위 개념의 언어로 번역하는 방안
- 2) 보다 중립적이거나 덜 표현적인 어휘로 번역하는 방안
- 3) 문화대체어를 이용하여 번역하는 방안
- 4) 차용어 또는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를 이용하여 번역하는 방안
- 5) 관련 어휘를 이용하여 풀어서 번역하는 방안

- 6) 관련이 없는 어휘를 이용하여 풀어서 번역하는 방안
- 7) 생략하는 방안
- 8) 삽화를 이용하여 번역하는 방안

김도훈(2006)은 「문화소 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 전략」에서 한영 번역에서의 단어 차원 문화소 번역 방안을 1) 상위어 사용 방안, 2) 문화대체어 사용 방안, 3)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방안, 4) 부연 설명 제공 방안 등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한 베이커의 번역 방안 중의 1), 3), 4), 5), 6)에 해당한다.(김도훈, 2006: 13-20)

김혜림 등(2016)은 「문화 용어의 중국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에서 한국 내 각 기관의 문화 용어의 중국어 번역 실태를 조사하고 번역 방안을 유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6: 59-61)

- 1) 한자역(한자어 한자역, 한자어 대응역)
- 2) 의역(의미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
- 3) 음역(중국어 음역, 로마자 표기)
- 4) 혼역(한자역, 의역, 음역의 결합)

한중 한자문화권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한자역과 복합어의 혼역 외에는 역시 앞에서 논의한 베이커의 단어 차원의 비등가어 번역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역 중의 의미역은 도착어 문화표현으로 풀어쓰기로, 대응역은 문화대체어로, 설명식 의미역은 2개 이상의 어휘를 풀어 설명하는 경우이다. 음역은 출발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음역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유형을 실제 번역에 적용할 경우, 번역자는 완전히 도착어 문화에 동화시켜 타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가급적 원문 분위기를 충실히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베누티(Venuti)는 현지화(domestication)와 타지화(foreignization)의 개념을 제시했다.(강수정, 2010: 12) 현지화는 도착어 독자에게 낯선 출발어의 문화적, 언어적 요소 등을 도착어 문화와 관습에 맞춘다는 것으로, 극단적인 경우 출발어와 현저하게 다른 고유한 번역어가 생성될 수 있다.

김혜림 등이 제시한 2) 의역(의미역, 대응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타지화는 출발어 문화의 색채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독자가 번역문을 읽으면서 번역문임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전략이다. 한자역과 음역, 혼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혜림 등이 제시한 1)한자역, 3) 음역, 4) 혼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 방안은 이어지는 3장에서 예시 번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 3.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명칭의 중국어 번역 방안

#### 3.1 중요무형문화재 123종 명칭의 유형별 분류

정부는 2016년 현재까지 국가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23종(130종 가운데 7종은 지정이 해제됨)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각 지정 종목은 음악(18종), 무용(7종), 연극(14종), 음식과 무예(4종), 놀이와 의식(29종), 공예 기술(51종)로 구분된다. 특히,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굴,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sup>3)</sup> 중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제5호 판소리, 제11호 농악, 제13호 강릉단오제,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제56호 종묘제례, 그리고 탈춤(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6호 통영오광대, 제7호 고성오광대, 제15호 북청사자놀이, 제17호 봉산탈춤, 제18호 동래야류, 제34호 강령탈춤, 제43호 수영야류,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제61호 은율탈춤,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제73호 가산오광대, 제79호 발탈), 굿(제70호 양주소놀이굿,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72호 진도씻김굿,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이굿,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제104호 서울새남굿)이 포함되어 있다. 명칭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한자어(統營五廣大, 古城五廣大 등 取音 한자어 포함)로 된 명칭이 있고, 고유어로 된 명칭이 있으며,

3) ‘100대 민족문화상징’이란 한 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해 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100가지 상징을 말한다. 2007년 문화관광부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전문 기관과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수립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발굴, 선정하였다. (김용범(2007: 14-39)).

또한 고유어와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명칭도 있다. 그 각각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자어로 된 78종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한자어)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나선장(螺鈿槓), 농악(農樂), 진주검무(晉州劍舞),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동래야류(東萊野遊), 대금정악(大琴正樂), 승전무(勝戰舞), 승무(僧舞), 가곡(歌曲), 낙죽장(烙竹匠), 조각장(彫刻匠), 조선왕조궁중음식(朝鮮王朝宮中飲食), 처용무(處容舞),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 가사(歌詞), 악기장(樂器匠), 수영야류(水營野遊), 대금산조(大琴散調), 궁시장(弓矢匠), 단청장(丹青匠), 영산재(靈山齋), 채상장(彩箱匠), 소목장(小木匠), 종묘제례(宗廟祭禮), 경기민요(京畿民謠), 장도장(粧刀匠), 두석장(豆錫匠), 백동연죽장(白銅煙竹匠), 석장(石匠), 연등회(燃燈會), 궁중채화(宮中綵花), 망건장(網巾匠), 탕건장(宕巾匠), 가산오광대(駕山五廣大), 대목장(大木匠), 유기장(鑰器匠), 입사장(入絲匠), 자수장(刺繡匠), 풍어제(豐漁祭), 농요(農謠), 석전대제(釋奠大祭), 침선장(針線匠), 제와장(製瓦匠), 태평무(太平舞), 전통장(箭筒匠), 제주민요(濟州民謠), 옹기장(甕器匠), 소반장(小盤匠), 옥장(玉匠), 금속활자장(金屬活字匠), 배침장(褙貼匠), 완초장(莞草匠), 사기장(沙器匠), 각자장(刻字匠), 누비장(縷紉匠), 목조각장(木彫刻匠), 화각장(華角匠), 윤도장(輪圖匠), 사직대제(社稷大祭), 주철장(鑄鐵匠), 칠장(漆匠), 염장(簾匠), 염색장(染色匠), 화혜장(靴鞋匠), 불화장(佛畵匠), 경산자인단오제(慶山慈仁端午祭), 한지장(韓紙匠), 금박장(金箔匠), 번와장(翻瓦匠), 법성포단오제(法聖浦端午祭), 삼화사수륙재(三和寺水陸齋), 진관사수륙재(津寬寺水陸齋), 선자장(扇子匠), 제다(製茶).

(2) 고유어로 된 중요무형문화재 8종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갯일, 줄타기, 강강술래, 발탈, 서울새남굿, 택견, 판소리, 아리랑.

(3)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되어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37종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양상)

양주별산대놀이(楊州別山臺놀이), 남사당놀이(男寺黨놀이), 한산모시짜기(韓山모시짜기), 북청사자놀음(北靑獅子놀음), 거문고산조(거문고散調), 봉산탈춤(鳳山탈춤), 매듭장(매듭匠), 안동차전놀이(安東車戰놀이), 영산쇠머리대기(靈山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靈山줄다리기), 나주의 셋골나이(羅州의 셋골나이), 서도소리(西道소리), 곡성의 돌실나이(谷城의 돌실나이), 강령탈춤(康翎탈춤), 피리정악 및 대취타(피리正樂 및 大吹打), 송파산대놀이(松坡山臺놀이), 남도들노래(南島들노래), 은율탈춤(殷栗탈춤),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밀양백중놀이(密陽百中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河回別神굿탈놀이), 양주소놀이굿(陽州소놀이굿), 진도씻김굿(珍島씻김굿),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줄다리기), 진도다시래기(珍島다시래기), 향제줄풍류(鄉制줄風流), 향토술담그기(鄉土술담그기), 명주짜기(明紬짜기), 바다장(바디匠), 황해도평산소놀이(黃海道平山소놀이), 경기도도당굿(京畿道都堂굿), 살풀이춤(煞 풀이춤), 선소리산타령(선소리山打令), 광주칠석고싸움놀이(光州漆石고싸움놀이), 가야금산조 및 병창(伽倻琴散調 및 併唱), 제주칠머리당굿(濟州칠머리당굿). 아랫녘 수록재(아랫녘 水陸齋).

### 3.2 번역 방안과 예시

출발어(한국어) 문화권에는 있지만 도착어(중국어) 문화권에는 없는 실제적 부등성이 존재하는 문화소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어떠한 번역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베이커(Baker)의 단어 차원의 비등가어 이론을 한국 중요 무형문화재 123종 명칭의 중국어 번역에 적용하여 문화소 번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김혜림 등(2016)의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한자역’, ‘의역(의미역, 대응역)’, ‘음역’, ‘혼역’ 등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한자역은 한자어로 그대로 직역하거나, 중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한자어일 경우 현대 중국에서 사용하는 대응어로 번역하는 방식이고, 의미역은 도착어 문화표현으로 풀어쓰는 방식이고, 대응역은 도착어의 문화대체어(대응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음역은 출발어의 음을 차용하여 중국어로 음역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혼역은 이들 번역방식이 결합된 방식이다.

한편, 한국 문화재청 홈페이지 중국어버전<sup>4)</sup>에는 ‘종묘제례’가 ‘宗廟祭祀’



로, ‘중묘제례악’이 ‘宗廟祭禮樂’으로, ‘판소리’가 ‘板索里’로, ‘강릉단오제’가 ‘江陵端午祭’로, ‘강강술래’가 ‘羌羌水越來’로, ‘남사당놀이’가 ‘男寺堂表演’으로, ‘영산재’가 ‘靈山齋’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濟州七頭堂靈登巫法’으로, ‘처용무’가 ‘處容舞’로, ‘가곡’이 ‘傳統歌曲’으로, ‘대목장’이 ‘大木匠’으로, ‘줄타기’가 ‘走繩’으로, ‘택견’이 ‘跤拳’으로, ‘한산모시짜기’가 ‘韓山夏布織造’로, ‘아리랑’이 ‘阿里郎’으로, ‘농악’이 ‘農樂’으로, ‘○○줄다리기’가 ‘○○拔河’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상 17종의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칭 번역은 본 논의에서 제시할 방안과 예시에 그대로 수용할 것이다.

(1) 한자어의 경우(한자역)

한자어로 직역하는 방식이 있다. 한자만으로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다. 대부분의 한자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한국에서 쓰는 한자어 그대로 직역하되 중국어 간체자로 변환해 주면 된다. 제1호 ‘중묘제례악(宗廟祭禮樂)’은 ‘宗廟祭禮樂’으로, 제12호 ‘진주검무(晉州劍舞)’는 ‘晉州劍舞’로, 제21호 ‘승전무(勝戰舞)’는 ‘勝戰舞’로, 제95호 ‘제주민요(濟州民謠)’는 ‘濟州民謠’로, 제122호 ‘연등회(燃燈會)’는 ‘燃燈會’로 번역해 준다.

하지만, 한자어로 직역을 했을 경우 도착어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도착어에는 원래 없는 명칭인 경우 비록 독자들이 뜻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 있다. 한자어라도 중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한자어일 경우, 현대 중국에서 사용하는 대용어로 번역해 준다. 그리고 가급적 중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어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타지화 번역에 해당한다. 제41호 ‘가사(歌詞)’는 한국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歌辭體의 긴 사설을 담은 장편 가요를 일컫는다. 현대 중국어 ‘歌詞’는 노랫말의 뜻이다. 가사(歌詞)와 중국어의 ‘歌詞’를 구별하기 위해 ‘가사(歌詞)’를 ‘歌辭唱曲’ 또는 ‘歌辭’로 번역할 수 있다. 제18호 ‘동래야류(東萊野遊)’, 제43호 ‘수영야류(水營野遊)’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東萊野遊와 水營野遊는 경상남도 내륙지방에서 행해지던 오광대가 바닷길을 따라 동래·수영 지역 등에 전래된 것이며 들에

4) <http://chn.cha.go.kr/chinese/html/sub1/index.jsp>.(2016.9.6).

서 행하는 일종의 탈놀이이다. 중국에 없는 한국의 특유한 예술 형식인데, 이를 한자어로 직역할 경우 중국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어의 ‘野游’는 ‘야외로 놀러 가다’, ‘소풍가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탈놀이’는 중국어로 ‘假面劇’이라고 하므로 ‘동래야류(東萊野遊)’는 ‘東萊假面劇’로, ‘수영야류(水營野遊)’는 ‘水營假面劇’으로 각각 번역해 준다. 또 중국의 경우 ‘궁중음식’을 ‘宮廷御膳’이라고 하므로,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朝鮮王朝宮中飲食)’은 ‘朝鮮王朝宮廷御膳’으로 번역해 준다.

## (2) 고유어의 경우

### ① 도착어 문화표현으로 풀어쓰기(의미역)

고유어로 된 명칭의 경우, 이에 대응할 중문 명칭이 없는 경우 도착어의 문화표현으로 풀어 준다. 즉,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의미의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로 풀어서 번역하는 방안으로, 현지화 번역에 해당한다. 이 방안을 사용할 경우 상당량의 인지 축적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지시적, 표현적 의미를 도착어에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인지적 축적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출발어를 가공하여 풀어쓰기 때문에 출발어 어휘의 문체론적 고려는 거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번역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서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4호 ‘갓일’은 갓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하나의 공예기술이므로 ‘갓일’은 ‘笠子工艺’로 번역해 준다.

### ② 도착어 문화대체어 사용하기(대응역)

고유어로 된 명칭 중 이에 대응할 중문 명칭이 있는 경우 그 용어를 대응어로 사용한다. 이 역시 현지화 번역에 해당한다. 제58호 ‘줄타기’의 경우를 보면, 줄타기는 줄 위에서 광대가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곡예로서, 줄 타는 몸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노래와 재담을 곁들여 줄 타는 사람과 구경꾼이 함께 어우러지

는 놀이이다.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놀이인 ‘走繩’이 있어 대응어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중국어 번역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 ③ 출발어의 음을 차용하기(음역)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고유어의 의미를 살릴 수 없을 경우 출발어의 음을 차용하여 비슷한 중국어로 음역을 해주는 것으로, 타지화 번역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재와 같이 짙은 문화적 색채를 띤 고유어를 번역하는 경우 출발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생동감과 이국적 정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중국어 음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교적 중국에 잘 알려져 있는 제5호 ‘판소리’, 제8호 ‘강강술래’와 제129호 ‘아리랑’을 음역할 경우에는 다만 어떤 한자를 사용하여 음역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음역 표기의 통일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판소리를 음역한 중문 번역이 ‘盤索里’, ‘板索里’(문화재청 번역), ‘盤騷里’, ‘盤騷俚’, ‘盤瑟俚’ 등 무려 5개나 된다. 강강술래는 ‘羌羌水越來’(문화재청 번역), ‘强羌水越來’, ‘强羌水来’, ‘强强须来’, ‘圓圈舞’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이 외에도 중국어 음역만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76호 ‘택견’의 경우, ‘跆拳道’이라 음역할 수 있는데, 이 음역어는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跤拳’(문화재청 번역), ‘脚戏’, ‘韩式脚功’ 등으로 대응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의미 전달을 보완하기 위해 ‘韩国传统武术之一’이라고 설명식의 의미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 ④ 혼역(음역, 대응역)

주로 고유어의 복합어로 이루어진 명칭의 경우에 사용하며, 타지화 번역에 해당한다. 제104호 ‘서울새남굿’의 경우를 보자. ‘서울’은 출발어 발음을 차용해 중국어 ‘首尔’로 음역하는 것이 통용되어 있고, ‘새남’은 죽은 사람의 넋이 극락으로 가도록 행하는 곳으로, 중국어에 해당되는 말이 없으므로 역시 음역을 취해야 한다. ‘굿’은 중국어의 ‘巫法, 巫术, 神祭, 跳神, 跳大神’에 해당되는 말이다. 문화재청 번역을 보면,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济州七头堂灵登巫法’으로 번역했으므로 여기에서도 ‘굿’은 ‘巫法’으로 대응역을 하고자 한다. 따라

서 ‘서울새남굿’은 ‘首尔赛南巫法’으로 번역해 준다.

(3)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경우(한자역, 대응역, 의미역의 혼역)

주로 한자어와 고유어의 복합어로 이루어진 명칭의 경우에 사용하며, 타지화 번역에 해당한다. 제3호 ‘남사당놀이(男寺黨놀이)’는 ‘男寺黨表演’(문화재청 번역)으로 번역해 준다. 한자역과 의미역의 혼역이다. ‘남사당’은 한자역으로, ‘놀이’는 대응하는 중국어 용어가 없어서 의미를 풀어주는 형식으로 번역을 해 준 것이다. 제14호 ‘한산모시짜기(韓山모시짜기)’는 한자역, 대응역, 의미역의 혼역이다. ‘韩山夏布织造’(문화재청 번역)로 번역을 할 수 있다.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어 ‘韩山’은 한자역으로, 고유어인 ‘모시’는 ‘夏布’, ‘苧麻’ 등의 대응어로, ‘짜기’는 ‘织造’, ‘纺织’ 등의 의미를 풀어주는 형식으로 번역해 준다. 제86호 ‘향토술담그기(郷土술담그기)’는 한자역, 대응역, 의미역의 혼역이다. ‘乡土酿酒’로 번역하면 그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다. 한자어 ‘郷土’는 한자역으로, ‘술’은 ‘酒’라는 대응어로, ‘담그기’는 ‘담그다’에서 왔고 중국어의 ‘釀’에 해당되는 말이므로 ‘釀’ 혹은 ‘釀造’로 번역해 준다. 제22호 ‘매듭匠’은 ‘结绳匠’이라고 번역하면 된다. 대응역과 한자역의 혼역이다. 고유어 ‘매듭’은 중국어의 ‘结绳’으로 대응역을 해 준다.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피리正樂및大吹打)’는 ‘笛子正乐和大吹打’로 번역한다. 이것도 역시 대응역과 한자역의 혼역인데, 고유어 ‘피리’는 중국어의 ‘笛子’로 대응역을 해 준다.

이상의 번역 방안을 적용하여 123종의 한국중요무형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누락된 번호는 지정이 해제된 중요무형문화재임)

〈표 1〉

번호	한국어	중국어	분야
1	종묘제례악	宗庙祭礼乐	음악
2	양주별산대놀이	杨州别山台假面剧	연극
3	남사당놀이	男寺黨表演	놀이와 의식
4	갯길	篮子工艺	공예기술
5	판소리	板索里	음악
6	통영오광대	统营假面剧	연극

7	고성오광대	固城假面剧	연극
8	강강술래	羌羌水越来	놀이와 의식
9	은산별신제	恩山别神祭	놀이와 의식
10	나전장	螺钿匠	공예기술
11	농악	农乐	음악
12	진주검무	晋州剑舞	무용
13	강릉단오제	江陵端午祭	놀이와 의식
14	한산모시짜기	韩山夏布织造	공예기술
15	북청사자놀이	北青狮子戏	연극
16	거문고산조	玄琴散调	음악
17	봉산탈춤	凤山假面剧	연극
18	동래야류	东莱假面剧	연극
19	선소리산타령	立唱山打令谣	음악
20	대금정악	大琴正乐	음악
21	승전무	胜战舞	무용
22	매듭장	结绳匠	공예기술
23	가야금산조 및 병창	伽椰琴弹唱	음악
24	안동차전놀이	安东车战戏	놀이와 의식
25	영산쇠머리대기	灵山木牛战	놀이와 의식
26	영산줄다리기	灵山拔河	놀이와 의식
27	승무	僧舞	무용
28	나주의 셋골나이	罗州多侍面粗布织造	공예기술
29	서도소리	西道歌谣	음악
30	가곡	传统歌曲	음악
31	낙죽장	烙竹匠	공예기술
32	곡성의 돌살나이	谷城石谷面麻布织造	공예기술
33	광주칠석고싸움놀이	光州漆石斗绳结戏	놀이와 의식
34	강령탈춤	康翎假面剧	연극
35	조각장	雕刻匠	공예기술
38	조선왕조궁중음식	朝鲜王朝宫廷御膳	음식과 무예
39	처용무	处容舞	무용
40	학연화대합설무	鹤莲花台合设舞	무용
41	가사	歌辞(唱曲)	음악
42	악기장	乐器匠	공예기술
43	수영야류	水营假面剧	연극
44	경산자인단오제	庆山慈仁端午祭	놀이와 의식
45	대금산조	大琴散调	음악
46	피리정악 및 대취타	笛子正乐和大吹打	음악
47	궁시장	弓矢匠	공예기술
48	단청장	丹青匠	공예기술
49	송파산대놀이	松坡山台剧	연극
50	영산재	灵山斋	놀이와 의식
51	남도들노래	南道田野歌	음악
53	채상장	彩箱匠	공예기술

55	소목장	小木匠	공예기술
56	종묘제례	宗庙祭礼	놀이와 의식
57	경기민요	京畿民谣	음악
58	줄타기	走绳	놀이와 의식
60	장도장	妆刀匠	공예기술
61	은울탈춤	殷栗假面剧	연극
62	좌수영어방놀이	左水营渔坊戏	놀이와 의식
64	두석장	豆锡匠	공예기술
65	백동연죽장	白铜烟竹匠	공예기술
66	망건장	网巾匠	공예기술
67	탕건장	宕巾匠	공예기술
68	밀양백중놀이	密阳百中戏	놀이와 의식
69	하회별신굿탈놀이	河回别神巫法假面剧	연극
70	양주소놀이굿	杨州祭牛巫法	놀이와 의식
7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济州七头堂灵登巫法	놀이와 의식
72	진도씻김굿	珍岛雪恨巫法	놀이와 의식
73	가산오광대	驾山假面剧	연극
74	대목장	大木匠	공예기술
75	기지사출다리기	机池市拔河	놀이와 의식
76	택견	跆拳道	음식과 무예
77	유기장	铦器匠	공예기술
78	입사장	入丝匠	공예기술
79	발탈	足控假面人偶戏	연극
80	자수장	刺绣匠	공예기술
81	진도다시래기	珍岛丧輿戏	연극
82	풍어제	丰渔祭	놀이와 의식
83	향제줄풍류	乡制弦乐	음악
84	농요	农谣	음악
85	석전대제	释奠大祭	놀이와 의식
86	향토술담그기	乡土酿酒	음식과 무예
87	명주짜기	明绸织造	공예기술
88	바디장	机杼匠	공예기술
89	침선장	针线匠	공예기술
90	황해도평산소놀이굿	黄海道平山牛戏巫法	놀이와 의식
91	제와장	制瓦匠	공예기술
92	태평무	太平舞	무용
93	전통장	箭筒匠	공예기술
95	제주민요	济州民谣	음악
96	옹기장	瓮器匠	공예기술
97	살풀이춤	驱邪舞	무용
98	경기도도당굿	京畿道道堂巫法	놀이와 의식
99	소반장	小盘匠	공예기술
100	옥장	玉匠	공예기술
101	금속활자장	金属活字匠	공예기술

102	배첩장	褙貼匠	공예기술
103	완초장	莞草匠	공예기술
104	서울새남굿	首尔赛南巫法	놀이와 의식
105	사기장	瓷器匠	공예기술
106	각자장	刻字匠	공예기술
107	누비장	缕緋匠	공예기술
108	목조각장	木刻匠	공예기술
109	화각장	华角匠	공예기술
110	윤도장	轮图匠	공예기술
111	사직대제	社稷大祭	놀이와 의식
112	주철장	铸铁匠	공예기술
113	칠장	漆匠	공예기술
114	염장	帘匠	공예기술
115	염색장	染色匠	공예기술
116	화혜장	靴鞋匠	공예기술
117	한지장	韩纸匠	공예기술
118	불화장	佛画匠	공예기술
119	금박장	金箔匠	공예기술
120	석장	石匠	공예기술
121	번와장	翻瓦匠	공예기술
122	연등회	燃灯会	놀이와 의식
123	법성포단오제	法圣浦端午祭	놀이와 의식
124	궁중채화	宫廷彩花	공예기술
125	삼화사 수륙제	三和寺水陆斋	놀이와 의식
126	진관사 수륙제	津宽寺水陆斋	놀이와 의식
127	아랫녘 수륙제	南水陆斋	놀이와 의식
128	선자장	扇子匠	공예기술
129	아리랑	阿里郎	음악
130	제다	制茶	음식과 무예

#### 4. 결론

본고에서는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베이커(Baker)의 단어 차원의 비등가어 이론을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123종 명칭의 중국어 번역에 적용하여 문화소 번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해보았다. 구체적인 번역 방안은 김혜림 등(2016)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한자역’, ‘의역(의미역, 대응역)’, ‘음역’, ‘혼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출발어의 유형과 도착어로의 번역 방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번호	출발어의 유형	도착어로의 번역 방안	
1	한자어	한자어로 직역하기(한자역)	타지화
2	고유어	도착어 문화표현으로 풀어 쓰기(의미역)	현지화
		도착어 문화대체어 사용하기(대응역)	
		출발어의 음을 차용하기(음역)	타지화
		음역과 대응역의 결합(혼역)	
3	한자어+고유어	한자역, 대응역, 의미역의 결합(혼역)	

본고에서 필자는 위의 내용을 통해 문화소의 부등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발어 문화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번역 방안이 다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베이커(Baker)의 비등가 문화소 어휘의 번역 방안 중에 ‘상위어’로의 번역은 지시어의 의미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과 출발어의 문화적 색채를 보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배제시켰다. 우선 한자어의 경우, 한자어로 직역(한자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한국어에는 한자에서 온 어휘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5)</sup> 하지만 한국 한자어와 현대 중국어의 차이, 양국의 언어 사용의 습관 차이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정확한 이해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자어 중의 대응어를 찾아 번역하는 방식이 있다. 고유어의 경우, 도착어 문화표현에 어울리는 의미로 풀어 쓰는 방법도 있고, 도착어 문화대체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짙은 문화적 색채를 띤 고유어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출발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생동감과 이국적 정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중국어 음역을 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중국어로의 음역도 정확한 표기의 통일 기준 마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명칭에는 복합어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한자어와 고유어가 모두 포함된 복합어의 경우, 한자어의 번역 기준과 고유어의 번역 기준을 통합하여 사용하면 된다. 번역은 한자역, 대응역, 의미역, 음역이 결합된 ‘혼역’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5)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50%에서 70%사이로 통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한자어는 수록 어휘 전체의 58.5%에 달하고 있다; 이희승이 편찬한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한자어는 수록 어휘 전체의 69.32%에 달하고 있다.



한민족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재들을 계승, 발양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명칭을 중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문화재 명칭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통일된 번역 명칭의 지정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 차원의 문화재 중국어 명칭에 대한 통일된 번역 지침서가 만들어진다면, 이 용어를 앞으로 중국어로 집필할 문화 교과서나 저서에 일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중국인 독자들에게 이해상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정 (2010) 「중한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4): 7-23.
- 곽은주 외 공역 (2005) 『말 바꾸기』, 서울: 한국문화사.
- 권인경 (2013) 「문화소 번역 방법 연구- 제주 관광안내 텍스트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5: 37-59.
- 금지아 (2015)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6(3): 7-26.
- 김도훈 (2006a) 「문화소 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 전략」,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2): 3-29.
- 김도훈 (2006b)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31-51.
- 김용범 (2007) 「문화관광부의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선정과 향후 과제」, 『아시아민족조형학보』 7: 14-39.
- 김혜림 · 장애리 · 강려영 (2016)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2.
- 남철진 (2013) 「한국 신문에 나타난 문화소의 중국어 번역 고찰」, 『통번역학연구』 17(2): 173-199.
- 박현주 (2014) 「문화재 용어 사전의 구축 현황 및 번역 보조도구로서의 활용성에 관한 제언」, 『번역학연구』 15(2): 59-64.
- 최희섭 (2010)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국보 명칭 영문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1(1): 271-291.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 이근희 (2005) 『이근희의 번역산책 - 번역투에서 번역전략까지』, 서울: 한국문화사.
- 문화재청 (2009) 『중요무형문화재』.
- 한국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12) 『2012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
- 한국국립국어원 (2002) 『우리문화길라잡이』, 서울: 학교재; 조경희·손지봉 역 (2004), 『韓國文化向導』, 서울: 學古齋.
- Korea visuals編輯部 (2002),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2권, 서울: 시공테크; 李華·李華敏 역 (2007), 『韓國文化遺產之旅』, 北京: 三聯書店.
- 박영순 (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서울: 한림출판사; 朴順姬·徐紅花 역 (2007), 『文化韓國』, 北京: 民族出版社.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Nam, Won Jun (2008) 'How Students Translate Culture-specific Items: An Analysis of Student Translations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3): 151-175.
- Venuti, Lawrence (1995) *The 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한국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2016.9.5).
- 한국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2016.9.5).

[Abstract]

## Research On Korean-Chinese Translation Methods for the Names of Korea Maj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um, Jia  
(Peking Universit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opposed to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denies the way to be preserved in a static form. It is human civilization embodied in music, dancing, drama, craft, games, etc.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recognized by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s having extraordinary artistic, historic and academic value, shall be designated as maj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vertheless, the names of the cultural heritage in Korea, when introduced in treaties or websites in China, have been translated in diverse vers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not confirmed a standard translation for the names of the cultural heritage in Korea. In my opinion, in order to present such heritage accurately to Chinese, and to facilitate their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 Korea cultural heritage, it is essential to give a unified Chinese translation of the names of the Korea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examines the methods for the Korean-Chinese translation of the names of 130 pieces of maj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Chapter II reviews theories about the translation of culture elements that include cultural heritage. Chapter III presents and expounds the theory-guided translation methods for Korean-Chinese translation of the names of the cultural heritage with the support of pertinent cases which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Chinese phases, fixed wording, and the combinations of Chinese phase and fixed wording.

▶ Key words: Korean-Chinese Translation; Names of Maj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ory of Translation of Culture Elements; Translation Methods.

▶ 주제어: 한중 번역,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소 번역의 이론, 번역 방안.

금지아

북경대학 한국어언어문화학부 부교수

kja2451@hanmail.net

관심 분야: 번역학, 번역학사,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